

#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계기,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조성 의지 다져

- 황종우 해수부 장관,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식 참석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2일(화)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도시민에게 우리 바다의 다채로운 가치를 알리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5월 11일(월)부터 5월 13일(수)까지 “어촌 올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귀어귀촌 희망자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정책 상담은 물론, 어촌의 고즈넉한 풍경, 파도소리와 함께하는 ‘바다멍 소리 명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한입여행’ 등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어촌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즐길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황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어촌은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해산물을 즐기고, 귀어귀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매력적인 기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라며, “정부는 어촌을 깨끗하고 편안해서 또 찾고 싶고, 삶이 풍요로워 정착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지정훈 (051-773-5650)
		담당자	사무관	김혜수 (051-773-5662)